‘마음쉼터를 가다’

⑨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쉼에서 지혜를 찾다
사색 위한 열린 공간
오대산 숲속으로…

풍요로운 오대산과 여유로운 남한강 오대천에 별빛, 달빛이 녹아내리고 소나무와 흰 구름은 바람의 빛깔이 되어 흩어진다. 고요하게, 그리고 차분히 홀로 앉아 있으면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짐을 느낀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항상 잠시나마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것이 아닌 사색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오대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이 일대에는 국내 최고 힐링공간으로 평가 받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 옴뷔)이 있다. 2018년 개원한 이래로 1년이 흐른 지금, 옴뷔는 불교를 넘어 세상을 향해 열린 명상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은 예로부터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자장율사부터 한암, 탄허 스님 등 선지식을 비롯한 고승들과 명필을 배출 한 것도 이 이유일 것이다.

오대산 맑은 기운 전하는 곳

이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옴뷔다. 옴뷔(OMV)는 오대산(Odaesan), 명상(Meditation), 마을(Village)의 줄임말이다. ‘숲에서 쉬다’, ‘자연을 먹다’, ‘느리게 놀다’ 라는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우리나라 명상, 힐링 플랫폼을 주창하며 세워졌다.

다른 명상마을과 명상원과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옴뷔는 명상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겪어본 다른 명상마을의 경우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롯한 불교수행과 현대화된 명상 한가지만을 주된 수행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제반 시설이 맞춰 세워져 있었다. 수용 가능한 수행인원 또한 차이가 있다. 일반의 명상원은 1:1지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순례기를 마무리하며

B4 책세상
정찬주의 〈법정 스님 인생응원가〉

B5 문화
안동대博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B6 학술
2019 학술 · 문화재 결산